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日韓両国の未来に向けたビジョンと相互協力  
한일 양국의 미래 비전과 상호 협력

2015年6月21日(日)  
2015년 6월 21일(일)

国連大学「エリザベスローズホール」  
국제연합대학「엘리자베스 로즈 홀」



**EAI**  
EAST ASIA INSTITUTE





## 主催者挨拶

### 日韓両国で未来に向けた対話を始めよう

私たちが行う「日韓未来対話」は3年前に韓国のEAIとの間で合意し始めたもので、今回が3回目となります。日韓の間には様々な民間対話があります。が、私たちの対話はそれらと異なりかなりユニークなもので、議論は市民に公開され、しかも私たちが共同で毎年実施する世論調査に基づき、両国の国民間の意識や相互理解の動向を判断して行われます。私たちが、公開された対話や国民間の意識の動向にこだわるのは、多くの市民が当事者として自らその改善に取り組まない限り、日韓両国の未来は描けないと考えるからです。

日韓両国は今年、国交正常化の50周年を迎えます。今年の「日韓未来対話」はまさにその調印日の前日に行われますが、ここで私たちが掲げる中心的なテーマは「日韓関係は本当に重要なのか」という刺激的なものです。これまでの二回の対話でも常に議論となりましたが、敢えてこのテーマに腰を据えて今回取り組むことにしたのは、国民感情の悪化が続く中で、両国の多くの国民が日韓関係の今日的な意味を見失い始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からです。

先月末に言論NPOとEAIは共同で今年の日韓の世論調査を公表しました。その中で驚いたのは、両国民の中に相手国に対する認識や理解が、相手国が納得できない形で形成され始めている、ことです。これを私は危険な“食い違い”だと考えます。日韓関係は重要だと考える人は両国に8割以上に及びます。にもかかわらず、日本人の中で韓国を民主主義の国などと思う人はわずかとなり、民族主義と思う人が増加しています。一方、韓国人は日本を軍国主義の国だと思う人が半数を超え、将来日韓の間で軍事衝突があると思う人も4割近くいます。こうした認識の危険な“食い違い”は一体、どこから来るのでしょうか。それこそ、私たちが今、真剣に向かい合わなくてはならないテーマなのです。

北東アジアでは中国の台頭の中でパワーの変化が起こり、この地域の未来が問われ始めています。その中で本来同じ側に立つ国が、お互いの関係の意味を見失っているとしたら、それはかなり深刻な課題です。両国関係には歴史の深い問題があり、日本はその加害者として真摯に向かい合う必要があります。と、同時に未来に向かう対話も始めるべきなのです。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のこの節目こそ、なぜお互いが重要なのか、を話し合いたい、と思います。

2015年6月  
言論NPO代表 工藤 泰志

### 한일 양국에서 미래를 향한 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개최 할 '한일미래대화'는 3년 전 한국의 EAI 와 함께 합의하여 시작한 것으로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한일 간에는 다양한 민간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그들과 달리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논의가 시민에게 공개되며,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간의 의식과 상호 이해의 동향을 파악하며 실시됩니다. 우리가 공개되는 대화와 국민 간의 의식의 동향을 고집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스스로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한일미래대화'는 바로 그 체결 전년에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내건 핵심 테마는 '한일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는 자극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번의 대화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었지만 굳이 이 테마로 정해 이번에 임하기로 한 것은 국민감정의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많은 국민이 한일관계의 오늘의 의미를 잃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언론NPO와 EAI 공동으로 올해의 한일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란 것은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상대국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위험한 “엇갈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국에 80% 이상 이릅니다. 하지만 일본인 중에서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고,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 미래 한일 간의 군사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40%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위험한 “엇갈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 일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테마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속에서 세력전환이 일어나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래 같은 편에 설 나라가 서로의 관계에 의미를 잃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 깊은 문제가 있고, 일본은 그 가해자로서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를 향한 대화도 시작해야 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이 고비에서야 말로 왜 서로가 중요한 것인지를 논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언론 NPO대표 쿠도 야스시

### 第3回 日韓未来対話 第3回 韓日未来対話

## 모시는 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과 겐론엔피오(言論NPO, 대표 쿠도 야스시)가 개최하는 제3차 한일미래대화(Korea-Japan Future Dialogu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수년간 한일양국은 냉각된 한일관계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은 커녕 당면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외교 현안에서조차 엇박자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최근 수년간 악화되어 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대화뿐 아니라 양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의 진솔한 대화의 장이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양 기관은 정계, 학계, 문화계, 경제계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민간패널을 구성하여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 현안과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대화의 장을 창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바로 한일미래대화의 장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2013년 제1차 도쿄 대화, 2014년 제 2차 서울 대화에 이어 이번 3차 대화는 다시 도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화는 매년 양 기관이 양국 국민과 지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관계와 양국 국민 인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한일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입니다. 나아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유지활동, 개발협력, 자연재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등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에서의 협력은 물론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한일미래대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한일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일 민간대화의 장에 참여하시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장 이숙종

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の今年、両国を代表する民間のシンクタンクである東アジア研究院(院長 李淑鍾)と言論NPO(代表 工藤泰志)は皆様を韓日未来対話へご招待申し上げます。

過去数年にわたって、両国は冷え切った現在の関係を緩和させるための手がかりを共に拾い集めることすらできない状態にあります。そして両国は現在、将来を見据えた協力関係を構築することとは程遠く、決着のついていない問題に関して協力をするきっかけを見出すこともできておりません。2013年に東アジア研究院と言論NPOは、政府間外交だけでなく、両国の市民社会や専門家たちが率直な対話をする場が必要だという認識に至りました。

この共通の理念に基づき、私たちは喫緊の課題について率直で正直な意見を交換するためのフォーラムを毎年開催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政治、学術、文化、経済など各分野の専門家を両国から招き、対話の空間を提供することで、韓日両国の将来的な協力関係が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日韓未来対話は私たちのこういった共通の願いから生まれました。2013年に東京で開かれた第1回と2014年にソウルで開催された第2回に引き続き、今年は東京に開催地が戻り第3回韓日未来対話を開催いたします。

毎年、この対話は東アジア研究院と言論NPOが実施している、両国の一般市民と有識者を対象にした調査の結果を踏まえ、両国国民の認識の変化について客観的に原因を追究してきました。加えてこの対話は、韓日関係を単に改善するだけではなく、長期的な発展に導く方法について率直な議論を交わすための場でもあります。また、この対話では、PKO活動、開発協力、自然災害時の支援活動、環境問題などの地域的課題や地球規模課題に関しても、両国が協力をし、新たなグローバル課題へ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提案を行っていく場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北東アジアを代表する民主主義の国である韓国と日本は、地域の平和的環境を守るために、北朝鮮の核兵器問題などの安全保障課題についても協力を進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皆様の「韓日未来対話」への興味と参加によって、韓日関係改善への一歩が踏み出されたと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皆様には対話へ参加いただくとともに、知恵を共有いただき感謝申し上げます。

2015年6月  
東アジア研究院院長 李淑鍾

## 日韓両国の未来に向けたビジョンと相互協力

時間	スケジュール
10:00～10:20	<b>非公開セッション</b> 主催者挨拶 工藤 泰志（言論NPO代表） 李 淑鍾（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国政管理大学院教授）
10:20～12:00	テーマ：「 <b>国交正常化50周年の今年に問われているもの</b> 」 司会：工藤 泰志（言論NPO代表） 李 淑鍾（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国政管理大学院教授）
13:30～13:40	<b>公開セッション</b> 座長挨拶 小倉 和夫（国際交流基金顧問、元駐韓国大使） 申 珏秀（国立外交院国際法センター所長、元駐日本大使）
13:40～15:00	<b>セッション1</b> テーマ：「 <b>日韓の共同世論調査に見る、両国民間の“危ない認識”</b> 」 司会：李 淑鍾（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国政管理大学院教授） 基調報告：工藤 泰志（言論NPO代表） 鄭 在貞（ソウル市立大学韓国歴史学教授）
15:00～15:30	<b>休憩</b>
15:30～16:40	<b>セッション2</b> テーマ：「 <b>日韓関係はお互いの国にとって本当に重要なのか？</b> 」 司会：工藤 泰志（言論NPO代表） 基調報告：趙 世暎（東西大学国際学部特任教授、前外交部東アジア局局長） 添谷 芳秀（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16:40～17:00	質疑応答

## 한일 양국의 미래 비전과 상호 협력

시간	프로그램
10:00~10:20	<b>비공개 회의</b> 개회사 쿠도 야스시 (언론 NPO대표)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10:20~12:00	<b>「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우리의 과제」</b> 사회: 쿠도 야스시 (언론 NPO대표)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13:30~13:40	<b>공개 회의</b> 의장인사 오구라 카즈오 (일본국제교류기금 고문, 전 주 한국 대사) 신각수 (국립 외교원 국제 법 센터 소장, 전 주 일본 대사)
13:40~15:00	<b>「한일공동여론조사: 위기에 빠진 한일 양국의 인식차이」</b> 사회: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발제: 쿠도 야스시 (언론 NPO대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15:00 ~15:30	<b>휴식</b>
15:30 ~16:40	<b>「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가?」</b> 사회: 쿠도 야스시 (언론 NPO대표) 발제: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 국장)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16:40 ~17:00	<b>총평 및 질의응답</b>

## 日本側パネリスト

浅尾 慶一郎	衆議院議員、日韓議連幹事
出石 直	NHK解説主幹、元ソウル支局長
小倉 和夫	国際交流基金顧問、元駐大韓民国大使
川口 順子	明治大学国際総合研究所特任教授、元外務大臣
工藤 泰志	言論NPO代表
小松 浩	毎日新聞社論説委員長
近藤 誠一	近藤文化・外交研究所代表、前文化庁長官
阪田 恭代	神田外語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添谷 芳秀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西野 純也	慶應義塾大学法学部准教授
深川 由起子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国際政治経済学科教授
藤崎 一郎	上智大学特別招聘教授、前駐米大使
山本 和彦	森ビル株式会社特別顧問、森ビル都市企画株式会社代表取締役社長
吉岡 利代	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 シニア・プログラム・オフィサー

## 韓国側パネリスト

康 燦守 (カン・チャンス)	KTB投資証券アドバイザー
金 世淵 (キム・セヨン)	セヌリ党国会議員
鮮 于鉦 (ソン・ウジョン)	朝鮮日報国際部部長
孫 洵 (ソン・ヨル)	延世大学校国際大学院院長
申 珏秀 (シン・ガクス)	国立外交院国際法センター所長、元駐日本大使
廉 載鎬 (ヨム・ジェホ)	高麗大学総長
吳 榮煥 (オ・ヨンファン)	中央日報東京総局長
李 淑鍾 (イ・スクジョン)	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大学国政管理大学院行政学科教授
李 元馥 (イ・ウォンボク)	徳成女子大学学長、漫画家
李 源宰 (イ・ウォンジエ)	希望製作所所長
鄭 在貞 (チョン・ジェジョン)	ソウル市立大学韓国歴史学教授
趙 世暎 (チョ・セヨン)	東西大学国際学部特任教授、前外交部東アジア局局長
崔 載千 (チェ・ジェチョン)	新政治民主連合国会議員

###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 일본 패널리스트

아사오 케이치로	중의원의원, 한일의원연맹간사
이데이시 다타시	일본방송협회 해설주간, 전 서울지국장
오구라 카즈오	일본국제교류기금 고문, 전 주한대사
카와구치 요리코	메이지대 국제종합연구소 특임교수, 전 외무대신
쿠도 야스시	언론NPO 대표
코마츠 히로시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장
콘도 세이치	콘도문화외교연구소 대표, 전 문화부장관
사카타 야스요	칸다외국어대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니시노 쥬야	게이오대 법학부 조교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후지사키 이치로	조치대 특별초빙교수, 전 주미대사
야마모토 카즈히코	모리빌딩주식회사 특별고문, 모리빌딩도시기획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요시로카 리요	휴먼라이츠워치 시니어프로그램 오피서

#### 한국 패널리스트

강찬수	KTB투자증권 고문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 국제부 부장
손 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전 주일본대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오영환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 만화가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 국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浅尾 慶一郎/아사오 케이치로 衆議院議員、日韓議連幹事/ 중의원의원,한일의원연맹간사



1964年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米国スタンフォード大学経営大学院卒業。衆議院議員(2009年～現在)、参議院議員(1998年～2009年)。  
1964년생. 동경대 법학부, 미국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중의원 의원 (2009년-현재), 참의원 의원 (1998년-2009년)

出石 直/이데이시 다타시 NHK解説主幹、元ソウル支局長/ 일본방송협회 해설주간, 전 서울지국장



1982年慶應義塾大学法学部政治学科卒業後、NHKに入局。報道局社会部記者、神戸放送局ニュースデスク、報道局国際部デスク、大阪放送局報道部担当部長、報道局国際部担当部長を経て、2007年から2009年までソウル支局長。解説委員を経て現職。プリンストン大学大学院フェロー(1994年～1995年)、イースト・ウェストセンター(ホノルル)フェロー(2012年)。共著に『神戸 心の復興』、『ウォルフレンを読む』など。

1982년생.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후, NHK입사. 보도국 사회부기자, 고베방송국 뉴스데스크, 보도국 국제부데스크, 오사카방송국 보도부 담당부장, 보도국 국제부 담당부장을 거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국장. 해설위원을 거쳐 현직. 프린스턴대학 대학원 펠로우 (1994-95년), 이스트웨스트센터 (호놀룰루) 펠로우 (2012년). 공저 <고베 마음의 부흥>, <윌프레드를 읽다> 등.

小倉 和夫/오구라 카즈오 日本国際交流基金顧問、元駐大韓民国大使  
/일본국제교류기금 고문, 전 주한대사



1938年生まれ。東京大学法学学士、ケンブリッジ大学経済学学士。国際交流基金顧問、外務省スポーツ外交強化有識者懇談会座長、日本財団パラリンピック研究会代表。以前には、経済局長、駐ベトナム大使、外務審議官、駐韓国大使、駐フランス大使、国際改革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メンバー、東京2020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員会評議会事務総長、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部客員教授、青山学院大学特別招聘教授などを歴任。

1938년생. 동경대 법학학사,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학사. 국제교류기금고문, 외무성 스포츠외교강화 유식자간담회좌장, 일본재단 패럴림픽연구회대표. 이전에는 경제국장, 주베트남대사, 외무심의관, 주한대사, 주프랑스대사, 국제개혁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멤버, 동경 2020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협의회 사무총장, 리즈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객원교수, 아오야마학원대학 특별초빙 교수 등을 역임.

川口 順子/카와구치 요리코 明治大学国際総合研究所特任教授、元外務大臣、元環境大臣  
/메이지대 국제종합연구소 특임교수, 전 외무대신, 전 환경대신



1941年生まれ。東京大学教養学学士(国際関係論)、エール大学大学院経済学修士。現在は明治大学国際総合研究所特任教授。以前には、世界銀行エコノミスト、在アメリカ日本国大使館公使、通商産業大臣官房審議官(地球環境問題担当)、サントリー株式会社常務取締役、環境庁長官、環境大臣、外務大臣、内閣総理大臣特別補佐官、参議院議員(2005年～2013年)など。

1941년생. 동경대 교양학 학사(국제관계론), 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메이지대 국제종합연구소 특임교수.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전), 주미일본대사관공사(전), 통상산업대신관방심의관(지구환경문제담당), 산토리 주식회사 상무이사(전), 환경청 장관(전), 환경대신(전), 외무대신(전), 내각총리대신특별보좌관(전). 참의원 의원 (2005-2013).

工藤 泰志/쿠도 야스시 言論NPO代表/언론NPO 대표



1958年生まれ。横浜市立大学大学院経済学修士課程修了。言論NPO代表。国際シンクタンク会議CoC日本代表を務める。現職以前には、東洋経済新報社『金融ビジネス』編集長、『論争東洋経済』編集長などを歴任。選挙時のマニフェスト評価や政権の実績評価の公表などの様々な政策議論やフォーラム開催。2005年中国と「東京-北京フォーラム」、2013年韓国と「日韓未来対話」を創設。

1958년생. 요코하마시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세계싱크탱크회의 CoC 일본대표, 언론NPO대표. 동양경제신보사 <금융비즈니스> 편집장(전), <논쟁동양경제> 편집장(전). 선거시의 매니페스토 평가와 정권의 실적평가의 공표 등 다양한 정책의론과 포럼 개최. 2005년 중국과 도쿄-베이징포럼, 2013년 한국과의 한일미래대화 창설.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小松 浩/코마츠 히로시 毎日新聞社論説委員長/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장



1957年生まれ。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政治学中退。毎日新聞社論説委員長。政治部の首相官邸、自民党、外務省等担当、ワシントン支局、欧州総局長、政治部長、東京本社編集局次長、論説委員、論説副委員長を歴任。1957년생.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정치학 중퇴.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장. 정치부의 수상관저자민당외무성 담당(전), 워싱턴지국(전), 유럽총국장 (전), 정치부 편집위원(전), 정치부장(전), 도쿄본사편집국 차장(전), 논설부위원장(전).

近藤 誠一/콘도 세이치 近藤文化・外交研究所代表、前文化庁長官  
/ 콘도문화외교연구소 대표, 전 문화청장관



1946年神奈川県生まれ。1972年外務省入省。ユネスコ日本政府代表部大使、駐デンマーク大使を歴任。2010年より文化庁長官。2013年退官後は、外務省参与(国連関係)、東京大学などで教鞭をとるほか、企業顧問、東京都交響楽団理事長などに就任。レジオンドヌール・シュバリエ章(仏)、ダネブロー勲章大十字章(デンマーク)など叙勲。1946년 가나가와현 출생. 1972년 외무성 입성. 전 유네스코 일본 정부 대표부 대사, 주 덴마크 대사. 2010년부터 문화청 장관. 2013년 퇴임 후에는 외무성 참여 (유엔 관계), 현재 도쿄대 등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기업 자문, 도쿄도 교향악단 이사장 등에 취임. 레종 도뇌르 슈발리에장(프랑스), 다네부로 훈장 대 십자 장(덴마크) 등 서훈.

阪田 恭代/사카타 야스요 神田外語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  
/ 칸다외국어대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慶應義塾大学大学院博士課程単位取得退学。現在は神田外語大学外国語学部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教授、専門は国際政治・安全保障。(財)平和・安全保障研究所安全保障プログラムフェロー、韓国・延世大学校現代韓国学研究所訪問研究員、米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訪問研究員。北東アジア協力対話(NEACD)、日韓フォーラム、日韓政策対話(世宗研究所)、日韓協力委員会などの会議・プロジェクトに参加。『朝鮮半島の秩序再編』、『アジア太平洋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ゼロ年代 日本の重大論点』など共著・単著多数。게이오대 대학원 박사과정 학점취득퇴학. 현재는 칸다외국어대 외국어학부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전문은 국제정치·안보. 재단법인 평화안보연구소 안보프로그램 펠로우, 한국 연세대학 현대한국학연구소 방문 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 동북아 협력 대화 (NEACD), 한일포럼, 한일정책대화 (세종연구소), 한일 협력위원회 등의 회의 프로젝트에 참여. <한반도의 질서 재편>, <아시아 태평양 안전보장 아키텍처>, <제로 년대 일본의 중요 논점> 등 공저·저서 다수.

添谷 芳秀/소에야 요시히데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1955年生まれ。上智大学大学院博士前期課程修了、ミシガン大学大学院博士課程修了(国際政治学博士号)。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同大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長。現職以前には、上智大学国際関係研究所助手、平和安全保障研究所研究員、慶應義塾大学法学部助教授、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客員教授、慶應義塾大学東アジア研究所所長などを歴任。1955년생. 조지대 대학원 박사 전기과정 수료, 미시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조지대 국제관계연구소 조수(전),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연구원(전), 게이오대 법학부 조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전).

西野 純也/니시노 준야 慶應義塾大学法学部准教授/ 게이오학 법학부 조교수



慶應義塾大学法学部政治学科卒業後、同大学より政治学修士号、延世大学社会科学大学院にて政治学博士号取得。現在は慶應義塾大学法学部准教授を務める。研究分野は現代韓国朝鮮政治、東アジア国際政治、日韓関係。現職以前には、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シグール・センタービジネス・스카ラー、ウッドロー・ウィルソン・センター・ジャパン・스카ラー、ハーバード・エンテン研究所交換研究員などを歴任。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를 맡고있다. 연구분야는 현대 한국 조선 정치, 동아시아 국제 정치, 한일 관계. 현직 이전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 시걸센터 방문 연구원, 우드로 윌슨 센터 재팬 스칼라, 하버드 엔칭 연구소 교환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深川 由起子/후카가와 유키코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国際政治経済学科教授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국제 정치경제 학과 교수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卒業、エール大学大学院(修士課程)修了、早稲田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博士課程)修了。現在は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術院教授。現職以前には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養学部教授、青山学院大学経済学部助教授、日本貿易振興機構(JETRO)海外調査部、(株)長銀総合研究所主任研究員、韓国産業研究院(KIET)、コロンビア大学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客員研究員、RIETI(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ファカルティフェローなどを歴任。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예일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와세다대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현재는 와세다대 정치경제 학술원 교수. 현직 이전에는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양학부 교수, 아오야마학원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해외 조사부, 주식회사 장은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KIET), 컬럼비아대학 일본경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RIETI (독립 행정법 인 경제 산업 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등을 역임했다.

藤崎 一郎/후지사키 이치로 上智大学特別招聘教授、前駐米国外使  
/조치대학교 특별초빙교수, 전 주 미국대사



1947年生まれ。上智大学特別招聘教授、慶應義塾大学特別招聘教授、一般社団法人日米協会会長。1969年外務省入省後、北米局長、外務審議官(経済)、在ジュネーブ国際機関日本政府代表部特命全権大使などを経て、2008年より在アメリカ合衆国特命全権大使。

1947년 출생. 조치대 특별초빙교수, 게이오대 특별초빙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미협회 회장. 1969년 외무성 입성 후 북미 국장, 외무 심의관 (경제), 주한 제네바 국제기관 일본정부 대표부 특명 전권 대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주한 미국 특명 전권 대사.

山本 和彦/야마모토 카즈히코 森ビル株式会社特別顧問、森ビル都市企画株式会社代表取締役社長  
/모리빌딩주식회사 특별고문, 모리빌딩도시기획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1946年生まれ。京都大学工学学士。森ビル株式会社特別顧問、森ビル都市企画株式会社代表取締役社長、筑波大学客員教授、東京都市大学客員教授。現職以前には、ULI日本委員会会長、再開発コーディネーター協会副会長、森ビル専務取締役、森ビル取締役副社長、不動産協会都市政策委員長など歴任を務めた。

1946년생. 교토대 공학 학사. 모리빌딩주식회사 특별고문, 모리빌딩도시기획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쓰쿠바대 객원교수, 도쿄도시대 객원 교수, ULI 일본위원회장(전), 재개발 코디네이터 협회 부회장(전), 모리빌딩 전무이사(전), 모리빌딩 이사 부사장(전), 부동산협회 도시정책위원장(전).

吉岡 利代/요시로카리요 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 シニア・プログラム・オフィサー  
/휴먼라이츠워치 시니어프로그램 오피서



国際人権NGO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上級プログラムオフィサー。タフツ大学学士。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証券、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 (UNHCR) 駐日事務所を経て、2009年4月、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東京オフィスの創設メンバーとなり現在に至る。2011年世界経済フォーラム (WEF) Global Shapers Community (GSC)、2013年度キュレーター (代表)。

국제인권NGO 휴먼라이츠워치 시니어프로그램 오피서. 터프츠대학학사. 골드만삭스증권, 유엔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 주일사무소를 거쳐, 2009년 4월 휴먼라이츠워치 동경오피스의 창설멤버가 되어 현재에 이룸. 2011년 세계경제포럼 (WEF) Global Shapers Community (GSC), 2013년도 큐레이터 (대표).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강 찬수/康 燦守(カン・チャンス) KTB투자증권 고문/KTB投資証券アドバイザー



1961년생.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워튼경영대 경영학 석사. KTB투자증권 고문, OSB저축은행 사외이사, Alpine River Capital 자문위원, KTB금융그룹 총괄부회장(전), Fortress 아시아 사장(전), 강앤드컴퍼니 대표이사(전), 서울증권 대표이사(전), BT Wolfensohn 상무(전), SK 사외이사(전), KB금융 사외이사(전), Bloomberg 아시아 퍼시픽 자문위원(전).

1972年生まれ。ハーバード大学経済学部卒業後、ペンシルベニア大学ウォートン経営学部にて経営修士号取得。現在、KTB投資証券アドバイザー、OSB貯蓄銀行社外取締役、アルパインリバーキャピタル・アドバイザーボードチェアマンを務める。現職以前には、KTB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総括副社長、Kang & Company代表取締役、ソウル証券代表取締役、BT Wolfensohn常務、SK Holdings社外取締役、KB Financial Group社外取締役、ブルームバーグアジア太平洋アドバイザーボードなどを歴任。

김 세연/金 世淵(キム・セヨン) 새누리당 국회의원/セヌリ党国会議員



1972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제18·19대 국회의원(2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전), 한일의원연맹 경제과학분과 부위원장(전),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청년노동분과 위원장(전), (재)고촌장학재단 이사(전)

1972年生まれ。ソウル大学国際経済学学士。第18・19代国会議員(2回当選)、国会教育文化体育観光委員会幹事、セヌリ党院内副代表、非常対策委員会委員。現職以前には、北東アジア歴史歪曲対策特別委員会幹事、セヌリ党第一事務部総長、経済民主化実践会代表、韓日議員連盟経済科学分科副委員長、韓中議會定期交流体制青年労働分科委員長、財団法人高村奨学財団理事などを歴任。

선 우정/鮮 于鉦(ソンウ·ジョン) 조선일보 편집국 국제부 부장/朝鮮日報編集局国際部部长



1967년생. 연세대 사학 학사. 조선일보 편집국 국제부 부장. 조선일보 주말뉴스부 부장(전),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전), 일본 게이오대 신문연구소 방문연구원(전). <일본 일본인 일본의 힘>(2009), <21세기 경영대가를 만나다>(2008)(공저) 저술.

1967年生まれ。延世大学歴史学部卒業。現在、朝鮮日報編集局国際部部长。現職以前には、朝鮮日報週末ニュース部部长、朝鮮日報東京特派員、慶應義塾大学新聞研究所訪問研究員などを歴任。著書に『日本、日本人、日本の力』、『21世紀経営専門家に会う』(共著)など。

손 열/孫 洌(ソン·요르)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延世大学校国際大学院院長



1961년생. 서울대 외교학 학사, 시카고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국립외교원 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2014), <South Korea in 2013 Meeting New Challenges with the Old Guard>(2014)(공동), <아베정권과 미일관계의 향방, 한일협력>등 저술.

1961年生まれ。ソウル大学外交学学士、シカゴ大学大学院政治学博士。現在、延世大学校国際大学院院長、東アジア研究院日本研究センター所長、東アジア研究院地球ネット21会長、韓国国際政治学会副会長を務める。その他にも、北東アジア歴史財団諮問委員、国立外交院諮問委員、外交部諮問委員などを務めている。著書に『米中デタントと日本—1972年日中国交正常化交渉の国際政治』、『South Korea in 2013 Meeting New Challenges with the Old Guard』(共著)、『安倍政権と日米関係の方向、日韓協力』など。

신 각수/申 珏秀(シン·가쿠스)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전 주일본대사/

国立外交院国際法センター所長、元駐日本大使



1955년생. 서울대 법학 학사, 동대학원 법학 석사·국제법학 박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주일본대사(전), 외교통상부 제1·2차관(전), 주이스라엘대사(전), 주UN대표부 차석대사(전), 조약국장(전).

1955年生まれ。ソウル大学にて法学学士号、法学修士号、国際法学博士号を取得。現在は国立外交院国際法センター所長を務める。現職以前には、駐日本大使、外交通商部第一次官、第二次官、駐イスラエル大使、駐国際連合代表部次席大使、条約局長などを歴任。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염재호/廉載鎬(ヨム・ジェホ) 고려대학교 총장/高麗大学総長



1955년생.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 일반행정학과 석사, 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총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중국인민대학 객좌교수. 고려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감사(전), 한일미래포럼 대표(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전).

1955年生まれ。高麗大学行政学学士、同修士、スタンフォード大学政治学博士。高麗大学総長、外交部政策諮問委員会委員長、韓国高等教育財団理事長、中国人民大学特任教授。以前には、高麗大学経営広報部副部長、韓国科学技術社会財団理事、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企画財政部行政評価委員会委員長などを歴任。

오영환/吳榮煥(オ・ヨンファン) 중앙일보 도쿄총국장/中央日報東京総局長



1963년생. 서울대 외교학 학사.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국제부장(전), 외교안보부장(전), 도쿄특파원(전), 통일문화연구소 북한팀장·부소장(전), 중앙SUNDAY 외교안보 에디터(전), 하버드대 웨더헤드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전).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2001), <김정일 최후의 도박>(The Peninsula Question)(2007)공역.

1963年生まれ。ソウル大外交学学士。現在、中央日報東京総局長。現職以前には同新聞社にて論説委員、国際部長、外交・安全保障部長、東京特派員、中央SUNDAY外交・安全保障エディタなどを歴任。統一文化研究所北朝鮮チーム長・副所長、ハーバード大学ウェザーヘッド国際問題研究所フェローも務めた。訳書に『21世紀日本の国家戦略』、『金正日最後の賭け』などがある。

이숙중/李淑鍾(イ・スクジョン)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大学国政管理大学院行政学科教授



1957년생. 연세대 사회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및 행정학과 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Trilateral Commission 아태지역 한국위원,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책 자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전),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Visiting Fellow(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Professorial Lecturer(전), 현대일본학회 회장(전), 외교통상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정책자문위원(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전).

1957年生まれ。延世大学社会学学士、ハーバード大学大学院社会学博士。現在は東アジア研究院院長、成均館大学国政管理大学院行政学科教授、外交部政策諮問委員、三國委員会アジア太平洋地域韓国委員、大統領國家安保諮問団諮問委員、統一準備委員会の民間委員、韓国国際協力団(KOICA)政策諮問委員を務める。以前には、統一部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委員、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客員研究員、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学国際大学院専任講師、現代日本学会長、外交部韓日新時代共同研究委員会委員、大統領直屬未来企画委員会諮問委員、大統領室外交安保首席政策諮問委員、大統領直屬地方行政システム改編推進委員会委員なども務めた。

이원복/李元馥(イ・ウオンボク) 덕성여대 총장, 만화가/德成女子大学学長、漫画家



1946년생. 서울대 건축공학과. 윈스턴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디플롬. 윈스턴대 철학부 서양미술사. 덕성여대 총장,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석좌교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나눔대사, 중앙일보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이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덕성여대 예술대학장(전),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초대회장(전). <먼나라 이웃나라> 전 15권, <신의나라 인간나라> 전 3권, <가로세로 세계사> 전 3권 등 다국어 번역 출간.

1946年生まれ。ソウル大学で建築を学び、ドイツ・ミュンスターにて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ディプロマを取得。現在、徳成女子大学学長、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碩座教授、大統領直屬文化推進委員会委員、韓国国際交流財団文化交流大使、中央日報1090平和韓国統一運動理事、大統領直屬文化隆盛委員会委員を務める。以前には、徳成女子大学美術学部長、および韓国漫画アニメーション学会の初代会長を務める。著書に『遠くの国々、近くの国々』全15巻、『神の国、人間の国』全3巻、『交差する世界史』全3巻がある。

第3回 日韓未来対話 제3회 한일미래대화  
参加者略歴 참가자 약력

이 원재/李源宰(イ・ウオンジェ) 희망제작소 소장/希望製作所所長



1972년생.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석사. 희망제작소 소장,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전),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전), <소셜 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2014) (공저),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2013),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2012), <이원재의 5분 경영학>(2009), <한국경제 하이에나를 죽여라>(2007) 등 저술.

1972年生まれ。延世大学経済学部卒業後、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学スローンスクールにてMBA取得。現在は希望製作所所長。現職以前には、ハンギョレ経済調査研究所所長、サムソン経済研究所主任研究員、ハンギョレ新聞経済ジャーナリストなどを歴任。著書に『社会フィクション：世界は何を想像しているのか』、『ワンダーランドの政治』、『ワンダーランドの経済』、『イ・ウオンジェの5分ビジネス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韓国経済：ハイエナを殺す』などがある。

정 재정/鄭在貞(チョン・ジェジョン)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ソウル市立大学韓国歴史学教授



1957년생.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사. 일본 동경대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동양사학(한국사) 전공 석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근현대사 및 한일관계사 전공 박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제2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및 간사(전), 북해도대학 특임교수(전), 동경대학 특임교수(전), 일본 도호쿠대학교 동북아시아연구센터 객원교수(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전), 일본방송교육개발센터 객원교수(전).

1957年生まれ。ソウル大学校師範大学歴史教育学士、東京大学アジア歴史学(韓国歴史学)修士、ソウル大学現代韓国歴史学韓日関係史博士。現在は、ソウル市立大学韓国歴史学教授を務める。以前には、北東アジア歴史財団第2代理事長、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客員教授、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会委員および幹事、北海道大学特任教授、東京大学特任教授、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客員教授、日本放送教育開発センター客員教授、韓日歴史学会理事長を務めた。

조 세영/趙世暎(チョ・セヨン)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 국장/東西大学 国際学部特任教授、前外交部東アジア局局长



1961년생. 고려대 법학 학사.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 국장(전),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전),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전), 외교통상부 동북아통상과 과장(전).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2014), <봉인을 떼려 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2004) 저술  
1961年生まれ。高麗大学法学学士。現在は、東西大学国際学部特任教授。以前は、外交部東アジア局局长、駐日本および駐中国大使館における公使参事官、外交部北東アジア通商部長を務めた。著書には『韓日関係の50年 対立と協調の歩み』(2014年)、『解禁への試み? 日米同盟の文脈における憲法改正問題』がある。

최 재천/崔載千(チェ・ジェチョン)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新政治民主連合国会議員



1963년생. 전남대 법학 학사. 동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제17·19대 국회의원(2선),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전), 한일의원연맹 간사(전), FTA 특별위원회 위원(전),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전),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전)  
1963年生まれ。全南大学法学士、のち同大学院修士および博士。17期および19期国会議員。以前は、金大中平和センター顧問、予算決算特別委員会幹事、韓日議員連盟監事、新政治民主連合戦略広報局長、FTA特別委員会委員、漢江法律事務所代表弁護士、延世大学大学院客員教授(公衆衛生)を務めた。

## 言論NPOとは

동아시아연구원(EAI)

言論NPOは、日本のメディアや言論のあり方に疑問を感じた多くの有識者が、日本の主要課題に対して建設的な議論や対案を提案できる新しい言論の舞台をつくろうと活動を始めた認定NPO法人です。2001年に設立され、本来、メディアが果たすべき「言論の役割」に、非営利組織の立場から挑戦してきました。

私たちは“しっかりとした議論がしっかりとした民主主義をつくり出す”と考えています。健全な社会には、当事者意識を持った健全な言論や、未来に向かう真剣な議論の舞台が必要です。そのため、国内において対案力のある質の高い議論づくりを行うほか、議論の舞台をアジアへも広げています。

国外においては、2005年に、中国との民間対話である「東京ー北京フォーラム」、2013年には、韓国との間で「日韓未来対話」を立ち上げました。2012年より米国・外交問題評議会(CFR)が設立した国際シンクタンク会議カOUNシルオブカOUNシルズ(CoC)の日本代表も務めています。2013年12月に、北東アジア広域にわたる平和で安定的な新しい秩序づくりをめざした「新しい民間外交イニシアティブ」を発足。北東アジアの課題を議論する総合的・戦略的なマルチ民間対話の実施や国際社会の課題に関する日本の主張の発信強化に取り組んでいます。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공공정책과 제도 및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분석·출판·교육에 헌신하고자 2002년 5월에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 국제 학술교류의 확대, 지식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정책이슈 분석 및 실천적인 접근법 제시 등을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 NPO

東アジア研究院(EAI)とは

언론NPO는, 일본 미디어나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의문을 느낀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주요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론이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인정NPO법인입니다. 2001년에 설립되어, 본래 미디어가 해야 할 「언론의 역할」에 비영리조직이라는 입장에서 도전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건실한 의론이 견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회에는, 당사자의식을 가진 건전한 언론이나 미래를 향한 진지한 의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 대한력을 가진 질이 높은 의론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의론의 장을 아시아에서도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는 2005년에 중국과 민간대화인 「도쿄 - 북경포럼」이 있었고, 2013년에는 한국과 일본간 「한일미래대화」가 설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미국·외교협의회(CFR)가 설립한 국제 싱크탱크 회의인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C)의 일본대표도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북동아시아 광역에 걸친 평화로 안정적인 새로운 질서 만들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민간외교 발언권」을 발족하였습니다.

북동아시아의 과제를 의론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멀티 민간대화를 실시하거나 국제사회의 과제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발신강화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東アジア研究院(EAI)は、東アジアが直面する問題へ政策提言や革新的なアイデアを提供している独立のシンクタンクです。EAIは、調査研究を行うと同時に、政策決定権を持つ人々や市民に、調査結果の公表、学術フォーラムの開催、教育プログラムの提供、出版などを通じて影響を与えています。第一線で活躍をしている学者や政策立案者と協働をすることによって、EAIは革新的な調査結果を生み出し、影響力のある政策議論の中心であり続けています。

後援

후원

Asahi

AsahiKASEI

ANA

kikkoman 

TORAY



MITSUI & CO.

  
MORI BUILDING

JAPAN FOUNDATION   
国際交流基金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한 국 고 등 교 육 재 단

